

제 90 호

연중 제 20 주일

(강림 후 11)

1974. 8. 18.

# 숲 정 이

발행인	김 영 일
인쇄인	함 승 천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601번지  
가톨릭센터 내 (전화 ③498)

### 【강 료】

## 별 세 계

이 병 호 신부



우리는 요즈음, 옛날이라면 생각도 해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구경거리들을 많이 본다. 그중에서도 사람이 달 나라에 가서 첫 발자국을 찍던 광경은, 눈으로 보면서도 믿어 지지 않음만큼 신기한 것이었다. 그런데 신기하다고 할밖에 없는 구경거리가 엇그제 다시 생겼다. 세계 제일의 자랑하는 초대강국의 대통령이, 우리 눈에 그렇게 까지 대수로를 것도 없을 듯한 문제가 화근이 되어, 중내에는 법 앞에 무릎을 꿇고 물려서는 광경은 우주선의 달 착륙 사진에 못지않게 신기롭기만한 것이었다.

우주선의 개발에 직접 참여하여 그 상세한 구조와 작용을 훤히 알고있는 과학자에게는, 사람이 달에 발을 딛었다는 일이 별로 신기 하지도 않을 것이다. 실패율이 몇 만분의 일밖에 안될만큼 완벽한 기계장치가 연출해내는 극히 당연한 결과임을 잘 알고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잠자리 비행기 한대 만드는 공장도 없는 우리에게, 우주선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신기하기만한 것이었다.

일개 법관의 신분으로, 더구나 자기 당의 당수요 최고의 권력자인 대통령까지도 법법의 협의가 있을때,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결국은 권좌로부터 물려서게 할 수 있었던 사회가 신기 하기만 하다. 그래놓고 하는 말- "나는 공화당원이지만 법관석에 앉으면 아무 쪽도 아니다. 나는 정치를 떠나는 것이다. 진실을 규명하는 것만이 나의 의무일 따름이다." 어느것 하나 신기스럽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볼 때, 왜 이런 일들이 내게 그토록 신기스럽기만 보이는 것일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느니, 사람은 나면서부터 똑같은 존엄성을 타고난다느니 하는 말들이 구태어 말로 표현하면 싱거운 소리로 들려오는데, 막상 그것이 실행에 적용됨을 보고서는 신기스럽게 느껴지는 현실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유대인이나 그레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 27-28)

2천년이나 전에 웨쳐진 이 진리가 언제나 세상 구석 구석까지 펼쳐질 것인가? 언제나, 극히 당연한 일이 당연한 것으로 느껴지고, 참으로 이상하고 신기스러운 일들만 그렇게 느껴지는 건강한 사회가 올 것인가?

(정읍 주임신부)

### \* 이 주일의 미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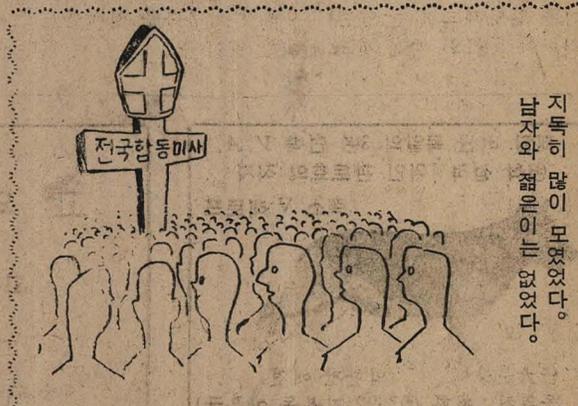
- (1) 개회식
  - 입당송 보소서, 우리 방패, 하느님이여 당신께 성된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실로 당신의 쉼나라면 천 날보다 더 나은 하루 되나이다.
- (2) 말씀의 전례
  - 제1독서 (예레 38 : 4-6, 8-10, 경향잡지 8월호 P. 70)
    - 은 세상 불목의 사람으로 나를 낳아주었다.
  - 찬가송 ① 어서 빨리 오시어, 주여 나를 도우소서 부르짖는 내 소리 들어 주셨네, 죽음의 구렁, 진흙의 수렁에서 나를 꺼내 주시고, 바다 위에 든든히 내 발을 세우시며, 내 걸음 힘차게 해 주시었네. ②
  - 제2독서 (히브리 12 : 1-4, 성서 P. 515)
    - 우리가 달려야 할 그 길을 꾸준히 달려가자.
  - 알렐루야 알렐루야. 내 양들이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나도 그들을 알아보노니,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알렐루야.
  - 복음 (루가 12 : 49-52, 성서 P. 165)
    - 나는 평화스럽게 하기는 커녕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노라.

- 신자들의 기도
  1. 주여, 당신이 특히 사랑하시던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교리교사의 연수회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특별히 공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들에게 은총과 용기를 주소서. ① 주여...
  2. 사도 베드로를 불러주신 주여, 금주에 있을 사도회장과 총무의 연수회에 특별히 강복하시어,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솔선수범하게 이끌어 주소서. ②
  3. 주여, 조국 해방의 기쁨을 맞는 이 8월에 나라의 정치 지도자를 위하여 비오니, 그들에게 총명한 판단력과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시고, 건강을 주소서. ③

+ 주여 비오니, 검은 것은 검다 하고 흰 것은 희다 하라 하셨으니, 진리와 정의를 지키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말과 행동으로 실천할 줄 아는 당신의 참 백성이 되게 이끌어 주소서. 우리... ④아멘

- (3) 성찬식 □축원 □영성체
  - 영성체술 주님께는 자비가 있사옵고, 풍요로운 구축이 있나이다.
- (4) 폐회식

### \* 숲 정 이 산책 \*



지독히 많이 모였었다.  
남자와 젊은이도 있었다.



# 영혼(靈魂)의 여름 ①

김 영 구 신부

우리 나라 기후로 6. 7. 8 석달 동안을 여름 곧 삼하(三夏)라고 한다. 기후에 여름이 있는것 처럼 영혼도 여름이 있다. 영혼의 여름을 당하여 아래와 같이

- ① 생장(生長)의 여름
- ② 녹음(綠陰)의 여름
- ③ 열열(炎熱)의 여름
- ④ 농번(農繁)의 여름
- ⑤ 장마(霖雨)의 여름
- ⑥ 등산유수(登山遊水)의 여름이 있음을 말해 보고자 한다.

## 1. 생장(生長)의 여름

“하루 하루 자고 일어나고 하는 동안에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라나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마르코 4장 27절)

봄은 씨를 뿌리는 때라고 하면 여름은 자라는 때이다. 오희백과와 초목 군생들이 자라는 때이다. 낮에 햇볕과 밤에 이슬이 자라게 하는 요소가 되었다. 밤에 자고 낮에 깨는 사이에 사람이 알지 못하는 동안에 자란다.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르다. 하루가 다르고 이틀이 다르리 만치 무럭 무럭 자란다. 사람이 자기가 뿌린 씨가 자라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

자연계의 생장기가 여름이요, 영혼의 생장기도 여름이다. 곡식이 자라는 것이 기쁜 것 처럼 영혼의 자라는 것도 우리의 기쁜 일이다. 사도 바울은 <나는 심으고 아플로는 물주되 오직 하느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고린토 전서 3장 6)

이는 영혼은 씨요, 밭은 교회요, 심으고 물주는 자는 교역자요 장성케 하시는 이는 하느님이시다. 뿌린 씨가 자라지 못하면 그것은 씨의 고장이나 밭에 고장이 있는 것이다. 영혼이 자라지 못하고 그냥 있으면 병든 영혼이다.

시편 (1:3)은 영혼이 자라나는 것을 가르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열매를 맺으며 잎새가 마르지 않을 것 같도다.>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것이 신기한 일이라고 하면 영혼이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갈라디아 5장22) 맺는 것도 신기한 일이다.

영혼이 자라는 모습을 보라, 이사야는 말하기를 <날개를 치면서 올라가는 독수리 같다>고 하였다(이사야 40:31).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느님을 아는데 일취월장(日就月長)하라 하였다. (골로사이 1-10)

부모가 자녀의 자라는 것이 기쁘고, 농부가 곡식 자라는 것이 기쁜것 같이 하느님은 영혼이 자라는 것을 기뻐하신다.

## 2. 녹음(綠陰)의 여름

“겨자씨는 모든 씨앗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지만 싹이 트고 자라나면 어느 푸성귀보다도 커져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일만큼 큰 나무가 된다.”(마태 13:32)

여름은 녹음의 때이다. 옛 글에도 녹음방초 승화시(綠陰芳草 勝花時)라 하였으니 여름의 녹음이 오히려 봄의 꽃보다 낫다는 뜻이다. 이 녹음은 온 산천을 푸른 옷을 입혀놓고 쓸쓸한 빈들을 푸른 실로써 수놓아 주었다.

영에게도 녹음이 있다. 푸른 것은 <평화와 성결의 상징>이다. 이 세상은 죽음과 슬픔의 겨울동산이요 쓸쓸한 사막지대이다. 이런 세상을 우리는 사랑과 화평과 성결로써 녹화(綠化)할 수 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증오가 변하여 사랑이, 낙망이 변하여 소망이 된다면 그것은 녹화의 여름동산이다.

옛날에 왕소군(王召君)이 몽고에 납치되어 가서 시를 읊으기를 <호지에 무화초하니 춘래에 불사춘(胡地無花草 春來不似春)>이라 하였다. 화초가 없는 몽고에는 봄이 와도 봄인 줄 모르겠다는 뜻이다.

보라 여름날에 새들이 녹음을 찾아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 모습을 보라. 각 교회에서는 여름방학을 이용하여서 교리강습, 종교 교육 여가선용 지도, 기도에 체험을 갖기도 한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는 내게로 오라>하셨다 (마태 11:28)

오는 자는 편히 쉬게 하리라 하셨다. 죄악의 폭양에서 집을 지고 땀흘리며 수고하는 인생들이 주님의 은총의 그늘 아래서 안식할 수 있다.

주님은 영혼의 녹음이다.

(계 속)

(전주시 교동 1가 132-4)

제일 비싼 독일의 3년 연속 V.A. 번식 성적 1위인 관토호의 직자 렉스 V 래토프



仔犬분양 (입한전 애견) 문의처: 전화 07692(진북동 어은팔)

## 고 외 과 의 원

고 재 상(나자로)

TEL. 07425

서중.교육위원회 앞(진북동)

## 업 소 아 과 의 원

업 도(시몬)

TEL. 06859

서울은행 옆 이치과 뒤

□ 양 지 쪽 □



# 이 더위에 무엇을 찾는가?

한 상 갑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한 모군이 전주에서 공연했을 때의 일이다. 장내의 소란을 피하기 위하여 어린이의 입장을 금했다 한다. 그런데 한 젊은 어머니가 갓난 아이를 업고 찾아왔다. 입장을 해야겠다는 것이다. 보다 더 훌륭한 연주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어린이들이 내는 수선함을 피하고자 입장을 불허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설명해도 막무가내라던 것이다. 음악감상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등에서 잠든 어린이를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 정도면 맹모의 삼척지교가 무색할 지경이다.

요사이 부쩍 극성을 피우면서 등장하는 사회문제의 하나로 자녀들의 진로지도 문제를 들 수 있다. 아이들의 소질과는 아무 관계없이 바이올린을 해야되고 피아노를 쳐야 하며, 취미도 없는 의대 시험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다.

옛날을 살던 조상들은 일제시대의 뼈저린 고통을 털어보자고 자기의 자녀들이 법대를 나와 판사나 검사를 해주기를 바랐고, 사범학교를 나와 교사가 되어 안정된(?) 생활을 해주기를 바랐다. 내 할아버님께서도 이 손자에게 그런 기대를 거셨고, 커다란 희망을 가지셨다. 그런데 이 손자는 할아버님의 일차적인 희망을 뜻 이루어 드리고 말았다. 그러나 내나를대로는 그렇게 섭섭하지는 않다. 칼자루를 안 쥐고, 커다란 자루에 돈을 주어담는 능력은 없어도 말이다.

대학에서는 꼭 역사를 공부해보고 싶었다. 그런데 할아버님의 소망대로 법학을 했다. 어느 학문이던 그 우열을 따진다는 것이 바람직한 일은 못될 것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대학의 어느 과를 나와야 잘 팔리는가를 먼저 따진다. 그것도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사람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이상 먹어야기에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은 방학기이다. 그런데도 각급 학교 진학반들은 수업에 바쁘다. 조국의 밝은 내일을 볼 수 있는 것 같아 기쁘기도 하다. 그러면서도 서글퍼지는 것은 왜일까? 학생들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학교는 학교대로 일류고교와 유명한 대학진학을 위한 불꽃 튀기는 경쟁에 이 더운 여름이 더욱 무덥게만 느껴지기 때문일 것이다. 하루에 7~8시간의 수업에 시달려야 하는 교사들도 그렇다. 이것이 누구의 잘못인가? 학교와 학관은 어떻게 다른가?

에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다. “세상의 온갖 것을 얻더라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전주 해성 중·고등 학교 교사〉

## 요십이 (56) 김병오



좋은 책을 많이 읽으면  
인생을 몇배 더 잘 살  
수 있다.

성 바오로 서원  
T. 2-7398

### \*이 주간의 성경\*

- 19<월> 독서(에제키엘 24 : 15-24)  
복음(마태오 19 : 16-22, 성서 P. 45)
- 20<화> 성 베르나르도 아빠스 학자 기념  
독서(집회서 15 : 1-6)  
복음(요한 17 : 20-26, 성서 P. 251)
- 21<수> 독서(테살로니까전서 2 : 2-8, 성서 P. 465)  
복음(요한 21 : 15-17, 성서 P. 261)

- 22<목> 독서(이사야 9 : 2-4, 6-7)  
복음(루가 1 : 26-38, 성서 P. 122)
- 23<금> 리마의 성녀 로사  
독서(에제키엘 37 : 1-14)  
복음(마태오 22 : 34-40, 성서 P. 54)
- 24<토> ※ 성 바르톨로메오 사도 축일  
독서(묵시록 21 : 9-14, 성서 P. 589)  
복음(요한 1 : 45-51, 성서 P. 204)

### 문 산부인과 의원

문 지 식(레나도)

TEL. ② 2918

경전라사 옆 체신청 뒤

### 이 신경외과 의원

이 종 두(헨리고)

TEL. ② 2646

아편원 옆. 구 대구집

고급 선물용, 케익, 빵, 피자, 찰살떡

◎교우들에게 특별 할인◎

### 미미 제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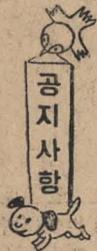
상업은행 옆 (②6589)

### 미미 음식점

남문 옆 (②3915)

김민주(가타리나)

제 4 지구 6개 본당 소식



1. 공소 교리 교사들을 위한 하기 연수회 (8월 18-22일 완주군 송광사 옆 (자연의 집)에서) 150여명의 공소 교리 교사들이 참가할 연수회의 성공을 위한 기도와 특별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 사도회장 및 총무 연수회 (8월 21-22일, 가톨릭 센터)  
사목 협의회에서 갖는 이 연수회에 각 본당 사도회장과 총무들의 빠짐없는 참석바라며,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3. 교구 예산 편성을 위한 평의원 사제와 평신도 연석회의 (8월 22일, 가톨릭센터)  
교구의 신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연석회의는 교구 평의원 사제들과 각 본당 대표 1명씩으로 구성됩니다.
4. J.O.C 교구 연합회 수련회 겸 정기총회 (8월 31일 오후 6시-9월 1일, 완주군 송광 캠프장)  
연락을 받지 못한 투사님들도 빠짐없이 참석하시고 자세한 상황은 ☎ 3498로 문의 바랍니다.
5. 전국 합동 미사 (8월 12일 오후 8시30분-10시40분, 전주 중앙 성당)  
100여명의 사제들과 1,500여 평신도 (수도자 포함)가 참여한 사회 정의 구현과 국가를 위한 전국 규모의 미사가 김재덕 주교님 집전으로 있었습니다.

(중앙)

전화 ②2651 ②3874  
주임 신부 이대권  
보좌 신부 서석구  
사도 회장 이복석

1. 신용조합 전진대회 (8월19일 (월))  
조합원 확충과, 조합발전을 위해 협조 바람 (조합원 등 도시락 지참 오전 9시까지 성당에 집합)
2. 교무금을 완납합니다.  
본당 유지비가 고갈되었습니다. 하느님께 자진헌입 하신 교무금 납부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본당의 제반사업이 중단상태입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미납된 교무금을 하루속히 완납합니다.
3. 성모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후)  
□지난 주일 봉헌금 38,674원, 감사합니다.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함승천  
사도 회장 조해형

1. 부녀회 월례회 (오늘 10시 미사후)
2. 사도회 월례회 (다음주일 공식 미사후)
3. 성당 신축런금 감사합니다.  
인후동, 한방지가, 유모니까, 박모니까  
우아동, 백마리아 (각 1천원)  
중노 2가, 무명씨, 인후동 1가, 무명씨 (각 5백원)  
□지난주 신축기금 5,000원 누계 1,506,497원  
지난주 신축 성미 2말 5되, 누계 203말 5되  
성모 승천 축일 봉헌금 16,165원  
지난 주일 봉헌금 11,145원, 감사 합니다.

(덕진)

전화 ②8082  
주임 신부 박종근  
사도 회장 김중환

1. 어머니 미사(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2. 신용조합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3. 교무금을 완납 합니다.  
본당 유지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신부님께 부끄럽지만 합니다. 74년 회계연도가 9월로 끝납니다. 내가 바칠 교무금을 몇 %나 바쳤는지 카드를 살펴 보시고 8월중으로 미납된 교무금을 완납합니다.  
□ 성모 승천 축일 현금 7,940원  
지난 주일 봉헌금 8,420원, 감사 합니다.

(북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오기순  
사도 회장 조성호

더위에  
더욱 건강하세요  
(금요일까지 원고 미착입니다.)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이거영

1. 상관 성당 하기 아동 교리(8월 16-21일)
2. 8월 22일 상관 성당 주보 축일  
상관에서 오전 9시에 축하 미사  
(본당에는 미사 없음)
3. 구이면 마을리, 광곡리 공소에 신학생이 순회  
매주 신학생들의 순회에 많이 참석합니다.
4. 8월-14일에 어린이 영세와 찾고해 잘 마쳤음
5. 교리 교사 연수회에 6명 참가  
공소 교사 4명과 회장단 2명이 무사히 끝나치고 다녀 오기를 기도로 응원 합니다.
6. 신용조합 월례회(다음주 공식 미사후)  
□ 지난 주일 봉헌금 9,155원, 감사합니다.

(전동)

전화 ②3222  
주임 신부 김환철  
보좌 신부 정승재  
사도 회장 정승재

1. 꼬미씨음 월례회(오늘 오후 1시 반)
2. 방지가 3회 제8차 총회 및 지도자 강습회  
① 주제 : 하느님과 이웃과의 화해  
② 기간 : 8월23-25일 ③ 장소 : 부산진구 우암동  
④ 참가비 : 2,500원 ⑤ 신청 마감 : 오늘까지  
⑥ 회원및 일반 교우의 참가를 권장합니다.
3. 8월은 교무금 완납의 달 (재정부 알림)  
각 동 구역장 및 사무장 가정방문, 적극 협조 바람  
● 금주의 숭정이 은인  
부녀부장 이길용(엘리사벳), 감사합니다.  
※ 숭정이 1주분은 5,000원입니다. 은인이 됩시다.  
□ 애령회 특별 현금 7,420원  
지난 주일 봉헌금 42,032원, 감사합니다.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터\*

영진약국

-조제약 전문

김을태(베드로)

☎육교연 중앙 시장동 (전화 ②4577)

\* 대형 에어컨 가동중!

프랑스 제과  
\*입금님 찾집\*

전주 전신 전화국 앞

● 제과 ②5011 찾집 ②5013  
김원준(야고버)

◎ 닭·염소·야생동물 일체 ◎

화랑상회

<교우들에 특별 봉사>

최병수(안당)

남부시장 닭전  
전화 ② 6C91(교환) 108